

과정이 좋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된 삶의 방식을 버리는 일. 그 일이 행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 성전스님 -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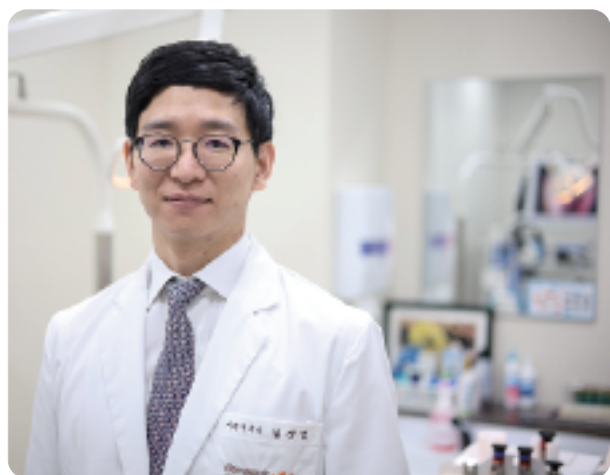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3일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 개소식을 열고 최첨단 ZAP-X 방사선 수술 장비를 기반으로 한 수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등 주요 인사와 교직원이 참석하여 양승엽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ZAP-X 장비와 센터 내부를 둘러봤다.

권범선 병원장은 “최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인 ZAP-X 도입으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최신의 PET-CT와 MRI 도입과 더불어 뇌 질환 치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엽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 센터장은 “뇌종양, 뇌혈관 질환 및 이비인후과, 안과 및 정신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 적응증이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적고 치료 즉시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ZAP-X는 2024년 3월 수도권 최초, 전 세계 21번째로 도입되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4번째이다. 방사선 수술 장비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장비로 현존하는 장비 중에서 뇌 및 두경부 질환 치료에 가장 최적화된 방사선 수술 시스템이다.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부비동 CT 기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예측’ 연구 논문 게재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부비동 CT 기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예측’이 지난 3월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IF: 24.7)에 게재되었다.

김진엽 교수 연구팀은 부비동 CT를 통해 폐쇄성 무호흡증의 중증도를 예측하였으며, 중증도 예측 정확도 87.4%, 의미있는 폐쇄성 무호흡증 예측 정확도 91.0%로 매우 높은 예측도를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김진엽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연구과제의 성과물로, 특허 및 본 논문 게재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진엽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통해 기존의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앞으로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의료 데이터를 폭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맞아 ‘봉축 법회’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3일 5층 대강당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축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봉축법회는 1부에서 육법공양, 설법, 환우선물 증정 등을 진행하고 2부는 1층 로비로 이동해 헌화, 헌다, 관불식을 진행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처럼 모두가 행복한 마음, 행복한 세상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설법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에스종합병원과 진료협력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4일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발전을 위해 △진료협력 △학술 정보교류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양 기관 간 상호신뢰 구축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의료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준 진료협력센터장은 협력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으로부터 본원으로 유입되는 환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강원도 영월군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한방의료봉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5월 19일 강원도 영월군을 찾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교직원 30여 명과 쌍용C&E 영월공장 직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지역민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시행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휴일을 반납하고 멀리까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준 교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의료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동국대병원 지부, 병원발전 기금 5백만 원 기부



지난 5월 24일 보건의료노동조합 동국대병원 지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발전을 지원하며 5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일간 병원 1층에서 ‘가정의 날 기념 바자회 개최’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로 노동조합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 상생을 위해 병원발전 기금을 기부했다.

황인봉 노동조합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서 병원 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마음에 와닿는 기부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하여 협력해 나가자”며 감사를 표했다.

故 신문식 님 유족, 병원발전 기금 1백만 원 기부

지난 5월 10일故 신문식 님 유족들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지원하며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유족들은 “아버님이 입원하시고 임종을 앞두었을때 가족들의 마음까지 깊이 헤아리며 진심을 다해 배려해 주신 호흡기내과 김병기 교수님과 71병동 간호사님 등 의료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적은 금액이라 미안합니다”라며 발전기금을 기부했다.